

기획특집 | Special Reports

마누엘 두스 산투스(가린샤)를 추억하며

루이스 H. 안테사나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은
결국 진실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면,
그것은 행복입니다.
— 페르난두 페소아

1

우리 시대에 대중흥행물보다 더 일시적이고, 무의미한 것도 없다. 대중흥행물은 별 의미도 없을뿐더러, 대중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일찍이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은 흐른다’고 말했는데, 이 말은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고, 부질없는 모방을 내면화시키는 어설픈 연극이나 만들어내며, 산업계와 광고계의 은밀한 커넥션이 판을 치는 이 시대와 부합한다. 일반적으로, 대중흥행물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관객, 배우 혹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받아들이고는, 각자의 방식으로 최대한 그 상황을 즐기려고 노력한다. ‘더 좋은 일이 생길거야’라고 자위하면서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허망한 시스템의 틈에서 가끔씩 무언가 반

짜거리거나, 혹은 어떤 것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것은 조작시스템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다. 마치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가 갑자기 거울 뒤의 세상으로 넘어가 버리는 것처럼 말이다.

2

1958년 6월 15일, 스웨덴 월드컵이 열렸을 때, 펠레와 가린샤는¹⁾ 브라질 축구대표팀 후보 선수로 선발되었다. 조직과 기술로 구성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모든 스포츠에서는 초월적인 경지를 건드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이 집단적 기억의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마법적이며 예술적인 비유를 통해 더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런 맥락에서 펠레는 초월적인 경지에 여러 번 도달하며 축구 황제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펠레보다는 가린샤야말로 전대미문의 영역에 도달한 선수라고 생각한다. 가린샤는 경기장 우측을 돌파하는 강력한 오른발을 갖고 있으며, 끊임없는 도전 정신, 고도의 집중력으로 축구공과 몸, 시간과 공간, 자신과 타인의 질서를 한데 어우르며 매순간 빠른 플레이에서도 차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예측할 수 없는



마누엘 두스 산투스

1) 가린샤(Garrincha)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진 마누엘 두스 산투스(Manuel dos Santos, 1933~1983)는 브라질 축구선수로 드ри블의 명수였다. 1958년부터 월드컵에 출전한 1962년 월드컵에서는 펠레와 함께 브라질의 두 번째 우승을 일궈내는 데 수훈을 세웠으며 브라질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별명 가린샤는 '굴뚝새'라는 뜻인데, 친구들은 마네(마누엘의 준말)라고 불렀다. 또 '민중의 기쁨'이라는 별명도 있고, 어릴 때 소아마비로 다리가 바깥으로 휘어져 '흰 다리의 천사'라는 별명도 얻었다.

가린샤의 전술은 언제나 모든 상황을 깨뜨리고 새로운 돌파구를 연다. 우리는 그 돌파구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고 또 그것이 정석은 아닐지라도, 가린샤의 플레이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사실 내가 가린샤 경기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린샤의 축구야말로 민중적인 것이 다른 어떤 시스템을 통해 도달할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고 말하고 싶다. 비록 이런 민중의 흔적이 어떤 측면에서는 가린샤의 삶처럼 실패했을 수도 있지만 말이다. 물론 이런 내 견해는 가린샤의 경기를 해석학적으로 보려는 것이 아니라 『천일야화』에 등장하는 어떤 이야기에 대한 주석과 마찬가지로 축구 전설에 대한 여담일 뿐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3

갓가지 지배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가린샤가 ‘민중의 기쁨’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가린샤는 불협화음과 심표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멜로디를 구성하며, 삼바 스텝을 연상시키는 기만동작을 구사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가린샤는 브라질 카니발에서 군주의 이미지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이미지는 기존의 권력이 가진 속성과는 거리가 멀다. 전형적인 군주의 귀족적인 모습이나 근엄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가린샤는 펠레처럼 ‘황제’도 아니고, 프란츠 베크하우어처럼 ‘카이저’도 아니다. 단지 ‘민중의 기쁨’일 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혹자는 가린샤가 가난한 판자촌에서 나타나 상대 진영의 ‘중심’을 과감히 공격하면서 상대편 선수의 혼을 빼앗았다고 말한다. 사실, ‘민중’ 혹은 ‘민중적인 것’이라는 표현은 민중 선동과 관련하여 온갖 방식으로 변형되고, 다양하게 사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레네 사바레타 메르카두(René Zavaleta Mercado)가 「11월의 군

중」에서²⁾ 언급한 군중의 의미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레네에 따르면, 군중 사이에는 상호주관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호주관성은 한 영토 안에서 형성되기도 하고, 역사적으로는 권력의 억압에 지속적으로 대항하면서 형성되기도 한다. 바로 이러한 성격을 가진 민중에게 가린샤는 기쁨 그 자체이다.

만약 민중이 영토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면, 가린샤의 경기는 바로 이런 상호주관성에 잘 부합한다. 가린샤는 경기에서 언제나 오른쪽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늘 중심과는 조금 떨어진 주변부 혹은 경계 지역에서 움직인다. 노먼 메일러(Norman Mailer)는 가린샤의 경기 스타일, 특히 대각선으로 돌파하거나 작은 공간을 활용하는 가린샤의 움직임을 아론 님조비치(Aron Nimzovitch)과 리처드 레티(Richard Reti)의 체스에 비유한다. 님조비치와 레티는 처음부터 체스판의 중심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드의 좁은 지역에서 움직이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중심을 파고드는 전략을 보여준다. 메일러는 『파이트』(1975)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체스에서 중앙 점령은 정석 중의 정석이다. 그 이유는 권투와 똑같다. 중앙을 차지하면 좌우로 공격할 때 기동성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 체스를 두는 방식에 변화가 일면서, 새로 등극한 고수들은 너무 일찍 중앙을 차지하면 장점도 있지만 약점도 생긴다고 주장했다. 상대방이 차지한 중앙 지역으로 공격해 들어가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물론 그런 전략을 사용하려면 좁은 지역에서 견딜 능력을 갖추어야만 하고, 단계마다 전략 수행이 뛰어나야 한다.³⁾

가린샤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경기장 가장자리에서 움직이며, 상대편 선수들을 하나 둘 제치며 중앙으로 치고 들어간다. 결국 상대편 선수들은

2) R. Zavaleta(comp.), *Bolivia hoy*, Siglo XXI Editores, México, DF, 1983.

3) N. Mailer, *The Fight*, Little, Brown and Company, Boston, 1975.

중앙으로 치고 들어가는 모습을 꼼짝없이 지켜봐야만 한다. 가린샤는 상대편 수비를 뚫고, 수비를 완전히 무너뜨리며, 결국엔 골을 만들어낸다. 이는 가히 환상적이다.

4

그렇지만 골만 보고 가린샤를 다 이해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 가린샤가 수많은 골을 넣고 어시스트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것은 가린샤와 다른 선수를 구분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 사실 골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관중을 열광시키는 단순한 기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골은 축구에서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는 없다. 수중에 공을 갖고 있는 누군가는 상대방 골문을 향해 공을 차게 되고, 그러면 공은 숙명적으로 골문을 향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가린샤 경기에서 항상 골이 터지지만, 그 의미는 조금 다르다.

물론 현실적으로 모든 골은 의미가 있으며, 경기의 승패는 골의 수로 정해진다. 그래서 가끔은 골 때문에 경기장에서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수비에서 실수를 하게 된다. 우연히 머리카나 다리에 공이 정확하게 맞아 골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화려한 개인기나 팀플레이로 멋진 골이 탄생하기도 한다. 이렇게 공이 골네트를 가를 때, 골은 연극의 한 막이 종결되었을 때 내려오는 무대막과도 같다. 그래서 골은 종료를 알리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가린샤 골의 성격은 이런 골과 거리가 멀다. 가린샤의 경기에서 정점은 골이 터지는 순간이 아니라, 골을 터지기까지 과정에서 보여주는 페인트모션, 태클, 경기 속도 조절, 현란한 기술이다. 이러한 과정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짜는 것과 같은데, 굳이 물고기를 잡아야 맛이 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가린샤는 골이라는 단순한 목적이나 의도로 움직이지 않으므로 골을 만들기 위해 상대진영으로 파고 들어가는

단계에 주목해야 한다. 『오디세이아』의 율리시스처럼 가린샤는 오로지 모험담을 들려주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다. 가린샤는 피가 많다.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Jean-François Lyotard)에 따르면, 생산과 욕망에 관련된 두 개의 서로 다른 태도가 있다. 하나는 생산물, 결과, 실용적인 소비에 초점을 두는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결과에 상관없이 그 과정 자체에 즐거워하는 비실용적인 태도이다.

한번 켜 성냥은 소모된다. 그 성냥으로 불을 붙이면, 우리는 일을 가기 전에 따뜻한 물로 끓인 커피를 마실 수 있다. 때문에 성냥의 소모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또한 그 행위로 자본은 순환한다. 상품으로서 성냥 → 노동의 원천 공급 → 자본 -급여 → 상품으로서 성냥의 과정을 통해서 말이다. 하지만 만약 어떤 아이가 재미로 성냥을 켜는 것은 그가 단지 불을 보고 싶어서, 불을 켜는 것이 좋아서, 혹은 불의 색깔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싶어서, 아니면 다 타고 남은 성냥개비를 보고 싶어서 성냥을 굽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성냥을 켜는 행위는 어떤 수익도 가져다주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는 물리학자가 에너지 변형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에너지의 상실일 뿐이다.⁴⁾

가린샤의 경기는 위에서 언급된 두 번째 경우, 즉 단순히 불을 보기 위해 성냥을 켜는 행위에 속한다. 우리는 가린샤의 경기를 보면서 비실용적인 것, 임의적인 것이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고, 보충적인 요소가 독립성을 획득하는 순간을 본다. 가린샤의 경기는 예술과 맞닿아 있다. 같은 맥락에서, 리오타르는 아도르노의 뒤를 이으며, 불꽃놀이야말로 현대 예술의 정점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불꽃놀이는 자기 자신의 죽음을 향해 아무 목적 없이 빛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누가 알겠는가. 우리네 삶이

4) J. F. Lyotard, *Des dispositifs pulsionnels*, Bourgois, Paris, 1980.

영원성에서 보면 이렇게 보일런지.

눈앞의 목적에 상관없이, 자신이 처한 순간에 푹 빠져 있는 가린샤는 경기 자체에도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터치라인의 귀재들」이란 글을 쓴 어떤 평론가는(글에서 성명을 언급하지 않았다) 악마같이 매서운 실력을 가진 가린샤의 경기를 보고 다음과 같이 전한다.

가린샤는 일요일마다 리오 데 자네이루 사람들의 대화에 등장하는 화제꺼리다. 그들은 터치라인 위에서 펼치는 가린샤의 묘기, 상대방 앞에서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마술 같은 움직임에 대해 항상 이야기한다. 사람들은 가끔 가린샤가 경기를 완전히 잊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고 한다. 그는 마치 그 공을 몰아 구아나바라(Guanabara) 만(灣)의 아름다운 풍경을 뒤로 한 판자촌 언덕 중턱에 가서 아이들과 축구를 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

아직도 가린샤는 그렇게 그곳에 있다.

5

레비스트로스의 말이 옳다면, 신화가 된 사람들은 자연과 문화 사이에 걸쳐있는 존재이다. 무언가가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에게 자연은 아직도 완벽하게 길들여진 것이 아니다. 그들은 무언가 동물적이고, 조르주 바타유(Georges Bataille)가 이해한 것처럼, 어떤 가면을 쓰고 있다. 즉, 문명의 가면을 쓰고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카오스의 일부분처럼 말이다. 가린샤의 경기는 폐쇄적이고, 경계적이고, 주변부적이기만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비이성적이다. 따라서 절정의 순간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 축구처럼 지면을 활용하는 경기에서, 가린샤는 최소한의 공간을 활용하면서 장기를 극대화시킨다. 발은 마치 땅에서 절대 떨어질 수도,

떨어지고 싶지도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흰 다리라는 약점은 오이디푸스처럼 가린샤의 전설에 중요한 근간을 이룬다. 가린샤의 흰 다리와 축구에서 한창 유명세를 떨치는 선수들의 완벽한 자세를 잠시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그가 스포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흰 다리에는 형태를 갖춘 자연에 포함되지 못하고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은, 즉 일종의

코라(khora)와 같은 형상들이 담겨 있다. 형태를 갖춘 자연에는 애벌레에서 나비 그리고 다시 애벌레로 가는 순환과정이라든지, 혹은 난초가 수정을 하기 위해 꿀벌의 성 페로몬을 모방해 분비하는 신비한 행위들이 포함된다(이 ‘완전한 것’ 들은 얼마나 이기적인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린샤는 흰 다리 때문에 멀리 갈 수 없었으며, 최소한의 땅에 자신의 꿈을 새길 수밖에 없었다.

‘민중의 기쁨’. 축구장의 가장자리에서 아주 작고 섬세한 미로를 만든 것은 지금껏 누구도 하지 못한 것이었으며, 때문에 전대미문의 의미를 갖는다. 그 미로 속에서 수비수들은 정신없이 방황하였고, 가린샤는 아리아드네의 실타래를 자신 혹은 동료선수들에게 연결하여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왔다.

가린샤의 경기는 마치 지키지 못한 약속처럼 절대 끝나지 않는다. 영원한 약속이란 한 기형적인 인간이(사실 모든 인간이 그렇지 않은가) 축구장 측면에서 발견했듯, 그토록 애타게 찾아온 순수하고 재미있는 낙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르헤스는 「끝없는 선물」(The Unending



마누엘 두스 산투스의 흰 다리

Gift)이란 시(詩)에서 “오직 신들만이 약속할 수 있다. 불멸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시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덧붙인다. “하지만 인간들 역시 약속할 수 있다. 약속에는 불멸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김선영 옮김]

루이스 안테사나(Luis Antezana) - 볼리비아 작가이자 학자. 로바이나 대학교에서 언어학 박사를 받았다. 축구에 관한 에세이집 『마네라고 부르는 작은 새』(Un pajarillo llamado Mané, 2002)를 출간했다.

김선영 -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박사과정 수료